

주간 증시 포커스

남북정상회담 증시 혼동
삼성전자 액면분할 주목
반도체·증권주 관심 필요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에 도달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축소로 이어지며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증시에서 외국인매도가 증가했다.

국채금리 상승 속에서 미국증시는 주초 하락했지만 지난 2월초까지의 미국 시장금리 상승 때와는 달리 향후 미국기준금리 인상계획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3%대 안착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다.

1~2일 열리는 5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동결이 예상되고 FOMC 이후 기자회견 없이 경제지표 및 경제현황에 대한 중간점검 성격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인상이 예상되며 향후 금리인상속도를 가능할 수 있는 점도표와 기자회견 내용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주 국내증시는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다. 23일 북한의 핵실험과 ICBM발사실험 중단 발표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기전자업종을 1조원 이상 순매도하며 주 초반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난 26일 삼성전자 실적발표 이후 개인 순매수로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하며 코스피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50대 1 비율로 액면분할(액면가 100원)을 위해 거래가 정지된다.

통상적으로 액면분할은 기업 가치 변화와는 무관하며 단기적인 수급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외국인인 지난주에만 9000억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다. 외국인이 2010년 이후 삼성전자에 대해 52~59%를 보유해왔는데 지난 27일 52.06%를 기록하고 있다.

2분기와 3분기 추가적인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꾸준히 요구해온 외국인이 삼성전자가 실적개선에 주목하지 아니면 액면분할을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을지 거래재가 이후 외국인 순매수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국내증시도 지난주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수의 방향성을 외국인 수급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선안적 의미가 강하고 북미회담에 따라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과 김정은위원장의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한다면 남북회담은 국내증시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필자는 평소 외국인 수급을 강조해 왔다. 특히 지정확정리스크 완화는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한국투자규모 확대를 의미하므로 남북정상회담과 삼성전자 액면분할 이후의 외국인 수급변화는 5월 코스피지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주 외국인 수급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주는 2분기 실적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과 금리상승 수혜업종인 증권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제약바이오는 6월에 미국중앙학회가 예정되어 있어 5월 중순부터는 다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양파 재배 역대 최대...가격 폭락 '눈물의 폐기'

지난해보다 35% 늘어 2만6418ha
전남 23% 증가...1600농 폐기 신청
값 하락에도 수입산 양파 유통 여전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폭락하면서 산지에서는 폐기처분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의 수입은 줄이지는 않고 풍년 때마다 국산 농산물을 갈아 엮는 산지폐기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무능력한 수급정책에 대한 지역 농가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올해 양파 재배면

적은 2만6418ha로 추정됐다.

지난해 재배면적 1만9538ha에 비해 6880ha(35.2%)나 늘어난 수치다. 통계청에 관련 통계가 남아 있는 1975년 이후 가장 넓은 수준이다.

국내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양파재배 면적은 지난해 9230ha에서 올해 1만 1327ha로 22.7% 늘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양파가격 상승이 재배면적이 기록적으로 증가한 배경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양파 연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1kg을 기준으로 2014년 589원에서 2015년 1060원으로 두 배가량 급등했다. 이어 2016년 1101원, 2017년 1234원으로 수년간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조생종 양파는 평년대비 가격이

47%까지 폭락하고 있는데, 곧 출하될 중만생종 양파도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 역시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지역 농가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조생종 양파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남 지역 1600여 개 달하는 농가들이 산지폐기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양파값 폭락으로 농업현장에서는 산지폐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입양파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농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농정 컨트론타워'가 공백이라는 점도 여전히 우려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400여명은 지난 25일 빛가람혁신도시 aT 사옥 앞에서 '겨울채소 가격안정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양파값 상승세로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채 수입산 양파로 물량을 비축해놓았는데, 산지폐기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를 시장에 풀어 가격을 더 떨어트리겠다는 것이다.

지역 농민회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수급조절 능력이 부족한 탓이다"며 "풍년 때마다 국산 농산물을 갈아 엮는 게 아니라 사전에 농산물 수입물량을 조절해 지역 농가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0일 정부 대책발표에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 생산자들과 연대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생산성 향상·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광주축산농협 ‘총결의대회’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지난 27일 조합창립 60주년을 맞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축산인 총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200여명의 광주·전남지역 축산인들은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조합사업 이용실적이 우수한 조합원에 대한 선정·시상식과 함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안명수 조합장은 “고된 영농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역 축산인들을 위해 소득증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농협 하나로마트와 인터넷 축산물소매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축협은 10곳의 신용점포와 사료공장을 주사업장으로 경영하며 총사업물량 1조 3000억원 규모로, 농축산물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 한우직매장 등 다양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활동을 진행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광주축산농협 창립 60주년 축산인 총결의대회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광주축협 제공>



농협 전남본부, 행복이음 패키지 홍보 가두 캠페인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29일 농협 하나로마트 무안 남악점 광장에서 ‘행복이음 추진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도농상생과 농가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행복이음패키지’ 상품의 홍보를 위해 진행됐다.

이 상품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금융상품으로 지난해 6월 출시, 입출식예금과 거치식예금, 정기적금, 목돈플러스 적금으

로 구성돼 있다.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농협에서는 판매금액에 비례해 ‘아름다운 동행기금’을 조성, 농업인 고객에게 최대 3%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농가소득 증대 상품이다.

박태선 본부장은 “많은 고객이 행복이음패키지 상품 가입을 통해 도농상생에 동참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농협 광주본부,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 ‘금요 직거래 장터’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광주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7일 광산구 수완동주민센터 앞에서 ‘금요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이번 금요 직거래장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50여개의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일수 본부장은 “매주 금요일 수완동주민센터 앞에서 개장하는 금요 직거래장터에는 광주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며 “유통비용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T,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추진 수출유망품목 발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수출유망품목을 발굴·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aT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농식품 가운데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은 라면 등 10개 품목으로, 수출확대가 직접적으로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은 제한적이다.

aT는 수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국산 원료 사용비중 등을 평가해 미래클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국내·외 이해관계자 등을 통해 유망품목을 추천받고 있으며, 품목의 차별적 기능, 수출국 예상수요 등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육성을 aT가 주도하며 전문 무역상사의 무역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산 농산물 생산가공업체 및 생산자단체라면 누구나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품목은 시장성 테스트, 시험수출 및 수출정착지원, 시장다변화 지원 등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5월3일까지 aT 관할 국내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roma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성GOOD! |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시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옥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